

運氣 25體質의 處方에 대한 研究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 生理學教室²

朴勇浩¹ · 趙學俊^{1*} · 金昊顯²

Study On Ungi Prescription Of 25 Organic Constitution

Park Yong-ho¹ · Jo Hak-jun^{1*} · Kim Ho-hyun²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 ²Physiology Semyung University

There were so many discussions about the importance of Ungi theory, but little about its application. But, in Korea, there is particular Ungi medical system. I studied the 25 organic constitutions and their prescriptions and concluded like below.

In 『Ounyuksihanihakbogam(五運六氣漢醫學寶鑑)』, 『Ounyuksihak(五運六氣學)』, there are 25 organic constitutions, and each of them has its basic prescription.

Like above, In 『Ounyuksigyeummoksuhwatosangsaengsanggeukbeop(五運六氣金木水火土相生相克法)』, 『Ounyuksigyeongheomcheobang(五運六氣經驗處方)』, and 『Jesaenglon(濟生論)』, there are also 25 organic constitutions, and each has basic prescription. Moreover, there are so many prescriptions for diseases can often occur.

I classified these as three groups, 『Ounyuksihak(五運六氣學)』 is group I, 『Ounyuksihanihakbogam(五運六氣漢醫學寶鑑)』 is II, and the other books is III, and compared each basic prescriptions. Group I and II use similar prescriptions, but group III doesn't.

This Ungi medical system has little relation with 『Somun(素問)』. And I couldn't find the organic constitutions based on Ungi from other country's oriental medical book.

25 organic constitutions have much sameness in prescriptions. These prescriptions are used in real medical system, but not wide. Of course, it needs more research, but it has another position in oriental medicine.

Key Words : 25 Organic Constitution(運氣 25體質), Prescription of Ungi 25 Organic Constitution (運氣 25體質處方)

I. 緒論

運氣體質의 이론적인 기초는, 臟腑氣化와 자연계의 氣化가 서로 通應하므로 五臟의 氣와 天地의 運氣가 같으면 그 도움을 받아 氣가 盛하고, 서로 다르면 도움을 얻지 못하여, 氣平하거나 氣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이 시작될 때부터 인체의 臟器는 각각 天地의 氣化와 밀접하게 상응하며 점차 體質의 차이

* 교신저자 : 조학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충북 제천시 세명로 117번지. Fax : 043-649-1702.
E-mail : johohun@kornet.net Tel : 043-649-1347.
접수일(2009년 1월 25일), 수정일(2009년 2월 7일),
게재확정일(2009년 2월 9일)

를 생성하게 된다. 이처럼 運氣體質論의 중요한 의의는 妊娠한 시기에 氣化의 영향을 강조한 데 있다.

父精과 母血이 합해져 入胎될 때부터 어느 정도 체질적인 素因이 정해지고, 母體에서 성장·발육하여 출생까지의 기간에 따라 체질적인 素因이 정해진다고 보고 있다. 前者를 ‘入胎體質’이라 하고 後者를 ‘出生體質’이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運氣體質’이라고¹⁾ 하였다.

이처럼 運氣體質을 감별할 때 주로 出生運(出生日 기준) 또는 入胎運(入胎日 기준)의 客運, 客氣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이 계산에 의하면 五運과 六氣가 相合되면 30가지(5×6=30)로 분류되는데, 이에 다시 客運의 太過·不及까지 고려하면 결국 총 60가지(30×2=60)의 運氣體質로 분류될 수 있다.

이 60가지의 運氣體質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으므로, 다시 5가지 客運의 太過·不及만을 위주로 분류한 것을 ‘五運 10體質’(5×2=10)이라고 부르고 있다.²⁾

이와 달리, 6가지의 客氣 중 君火와 相火가 五行 중 모두 火에 속하기에, 5가지 客運 중에 서로 다른 5氣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이렇게 25가지(5×5=25)로 세분한 것을 ‘五運五氣 25體質’ 또는 줄여서 ‘運氣 25體質’이라고 命名할 수 있다³⁾.

지금까지 運氣體質에 대한 연구로는, 金基郁⁴⁾이 運氣 25體質의 이론적 근거와 그 運用法을 밝혔고, 朴錫紀⁵⁾는 電子脈診을 이용하여 五運 10體質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運氣 25體質을 臨床에

活用하는 處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먼저 運氣 25體質의 處方이 기재된 그 專門書의 由來와 系統을 살펴보고, 그 書籍 간 處方 운용의 차이를 비교하여 이를 報告하고자 한다.

II. 本論

1. 運氣 25體質論의 基源

(1) 『內經』의 運氣體質論

運氣가 人間의 體質形成에 密接한 關聯이 있음이 『內經』의 여러 곳에서 根據를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靈樞·天年』⁶⁾ “黃帝問于岐伯曰, 願聞人之始生, 何氣築爲基, 何立而爲樞, 何失而死, 何得而生. 岐伯曰, 以母爲基, 以父爲樞, 失神者死, 得神者生也. 黃帝曰, 何者爲神. 岐伯曰, 血氣已和, 榮衛已通, 五藏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⁶⁾이라고 하여, 父母의 受胎를 통한 生命의 誕生을 說明하였다⁷⁾.

② 『素問·生氣通天論』⁸⁾ “黃帝曰,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 天地之間, 六合之內, 其氣九州九竅, 五臟十二節, 皆通乎天氣, ……”⁸⁾에서도 역시 生의 本은 陰陽에 根本하며 天氣에 通함을 설명한다.

③ 『素問·實命全形論』⁹⁾ “岐伯曰, 夫人生於地, 懸命於天. 天地合氣, 命之曰人, 人能應四時者, 天地爲之父母, 知萬物者, 謂之天子, ……”⁹⁾

④ 『素問·五常政大論』¹⁰⁾ “帝曰, 歲有胎孕不育 治之不全 何氣使然. 岐伯曰, 六氣五類 有相勝制也 同者盛之 異者衰之 此天地之道 生化之常也.”¹⁰⁾ 즉 動物의 妊

1) 金基郁. 運氣體質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0. 1996. p.595.

2) 朴錫紀. 運氣體質과 電子脈診. 大韓韓醫學會脈診學會誌. 1996. p.19.

3) 金基郁. 運氣體質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0. 1996. p.595, 598.

金基郁의 논문에서 ‘運氣 25體質’이라고 부르지 않고 ‘運氣體質’ 또는 ‘臟腑體質’로 부르고 있다. 또한 朴錫紀의 논문에서 ‘五運 10體質’(○運 □體質)이라 부른 형식을 따라서 ‘五運 10體質’과 구분하기 위해, 필자가 ‘五運五氣 25體質’(○運 ◇氣 □體質), 또는 줄여서 ‘運氣 25體質’이라고 명명하였다.

4) 金基郁. 運氣體質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0. 1996.

5) 朴錫紀. 運氣體質과 電子脈診. 大韓韓醫學會脈診學會誌. 1996. 2.

6) 洪元植. 校合編纂, 正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出版部. 1985. p.241.

7) 申龍燮, 李容範. 『黃帝內經』의 體質理論에 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4(2). 2001. p.19.

8)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編. 類編黃帝內經. 大田. 周民出版社. 2005. p.45.

9)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編. 類編黃帝內經. 大田. 周民出版社. 2005. p.51.

10)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3. p.427.

娠, 養育, 生長은 運氣의 六氣 및 五類의 影響과 制約을 모두 받는다는 말이다.

그 理論의인 基礎는 ‘同者盛之, 異者衰之’로 人體五臟의 氣와 運氣가 같으면 그 도움을 받아 기가 盛하고, 서로 다르면 도움을 얻지 못하여, 氣平하거나 氣衰한다. 이는 臟腑氣化와 自然界의 氣化가 서로 通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妊娠이 始作될 때부터 人體의 臟器는 各自 天地의 氣化와 密接하게 相應하며 漸次 體質의 差異를 生成하게 된다. 運氣理論의 重要한 意義는 妊娠한 時期에 氣化의 影響을 強調한 데 있다(11) 하였다.

또한, 現代醫學의인 考證에 있어서, 鄭昌根이¹²⁾ 5년 6개월간 서울 시내 綜合病院에서 內部 臟器의 問題로 手術한 사람을 對象으로 生年月日과 그로 인한 臟腑의 衰弱을 豫想하고 實際 患者와 比較해보아 有意性있는 結果를 도출하였다.

그런데 論文自體의 研究方法論이 命理學이라고 하나, 實際의 運用이 陰陽五行, 五運六氣에서도 모두 이용되는 기초적인 방법임을 볼 때, 運氣學的 體質에 關한 臨床的 根據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2) 運氣 25體質論의 정의와 활용

『五運六氣漢醫學寶鑑』¹³⁾에서는 두 종류의 體質論과 그에 따른 處方이 紹介되고 있다.

한 가지는 각각의 해에 天干藥과 中元藥을 設定하고, 一年을 10가지의 時期로 나누어 處方을 분류한 것인데, 여기에서의 體質을 朴錫紀는 ‘五運十體質’이라고 稱하였는데¹⁴⁾ 적절한 名稱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金基郁은 ‘25類型의 運氣體質’이라고 이름 붙였는데¹⁵⁾, 筆者는 가령 木火臟腑라고 하면

이는 木運火氣臟腑의 略式表現에 해당되므로 運氣 25體質이라고 命名하기로 하였다.

運氣 25體質 處方의 臨床 活用은 아직까지 많은 呼應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體質 辨證과 處方을 運用하여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다.

運氣 25體質을 결정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入胎日을 定하는 것과 生年月日을 보는 방식, 이른바 두 가지 推命의 方法이다.

推命 방식은 두 가지로 意見이 나뉘니, 五運十體質의 處方은 入胎日과 出生日이 모두 이용되고, 運氣 25體質 處方은 대체로 入胎를 中心으로 運用하는 사람이 더 많으나 入胎와 出生이 모두 利用되고 있다.

運氣 處方이 사용되는 방식도 五運十體質의 處方을 사용한 후에 이 處方을 利用하거나 單獨으로 處方하는 境遇도 있었다.

入胎日을 推算하는 방법은 여러 論文¹⁶⁾과 書籍¹⁷⁾에서 提示되어있지만 그 근거자료를 『黃帝內經』을 비롯한 古典韓醫學書籍에서 찾을 수 없었다.

다만 『東醫寶鑑·內景編·身形』의 胎孕之始 中에 “上陽子曰, 人初受氣也. 九日而陰陽大定, 四十九日而始胎, 然後七日而一變, 故滿三百有六日者, 滿二百九十六日者皆上器也, 有二百八十六日者, 二百六十六日者, 中器也. 有二百五十六日者, 二百四十六日者, 下器也. 盖天干甲必合己而方生, 地支丑, 必合子而方育, 自非天地合德, 則人必不生也, 故云, 九月神布氣滿而胎完, 亦云十月懷胎也, 此天地之德合於氣而後生也.”¹⁸⁾라고 하여 入胎日로 인한 上·中·下器論을 說明한 내용이 가장 연관이 깊다.

上陽子는 元代 道家 哲學者인데 이 사람의 代表的 著書인 『周易參同契章注』¹⁹⁾나 『金門大要』²⁰⁾의 原文

11) 楊力 著, 박현국, 김기욱, 문재곤 譯. 中醫運氣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317.
 12) 鄭昌根. 장기별 증증질환 증상의 발현과 명리학적 분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2.
 13) 天安漢醫師會. 五運六氣漢醫學寶鑑. 서울. 右文堂印刷社. 1967.
 14) 朴錫紀. 運氣體質과 電子脈診. 大韓韓醫學會脈診學會誌. 1996. 2. p.19.
 15) 金基郁. 運氣體質에 關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志. 1996. 10.

16) 金基郁. 運氣體質에 關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志. 1996. 10.
 17) 박영배, 김태희 編者. 運氣醫學, 서울. 成輔社. 2005. 崔晟植編. 五運六氣處方學, 미국. 東洋서적. 1997. 白南喆. 五運六氣學. 서울. 翰林醫學社. 1979. 天安漢醫師會. 五運六氣漢醫學寶鑑. 서울. 右文堂印刷社. 1967.
 18) 許浚.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116.
 19) 上陽子. 周易參同契章注·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CD].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8. 中の 道家類.

에 入胎日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다. 이로 볼 때 入胎日을 推算해서 體質을 定하는 方式은 韓國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命理學에서는 入胎日을 胎元이라고 하고, 入胎日을 찾는 方法을 胎息²¹⁾이라고 하는데 方法은 五運六氣學과 거의 비슷하다. 現代命理學의 推命法이 五運六氣學에서의 基本的인 體質이나 疾患을 찾는 方法과 다른 점은 바로 八字와 六甲의 差異다.

宋代 徐子平의 『珞珠子三命消息賦註』에서 推命術이 年月日時의 四柱로 보는 方法이 確定²²⁾되면서 命理學은 四柱를 選擇하게 되고, 아직도 이 方法이 使用되고 있다.

이처럼 命理學에서는 生年, 月, 日, 時의 四柱八字가 기본적인 推命方法이지만, 현재 韓國의 五運六氣學에서 사용되는 方法은 生年月日의 三柱六甲만을 보는 方法으로, 태어난 시간은 主運과 主氣의 變化時點에서만 이용된다. 이 方法을 三柱라고 하는데 宋代에 一般의으로 사용되었다.

最近 많은 命理學 論文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四柱와 疾病을 比較하는 論文들도 적지 않다.

鄭昌根은 重症疾患과 四柱의 關係를²³⁾, 정인순은 中風疾患과 四柱의 關係를²⁴⁾, 이영주는 陰陽五行 體質과 皮毛의 關係를²⁵⁾ 연구하여 긍정적인 결과들을 얻었는데, 모두 出生日을 根據로 計算한 것이다. 한편 朴錫紀는 入胎 五運十體質과 관련지어, 이 體質을 가진 사람의 病症과 電子脈診의 病症이 相應한다고 結論지어²⁶⁾ 入胎日의 妥當性에 대한 根據를 보여준다.

20) 上陽子. www.taoismcn.com/article/金丹大要.htm.

21) 胎息은 다른 意味로 養生法에서 呼吸法을 말하기도 한다.

22) 정연미. 徐子平 珞珠子三命消息賦註의 命理學史의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철학대학원, 2003.

23) 鄭昌根. 장기별 중증질환 증상의 발현과 명리학적 분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2.

24) 정인순. 四柱와 疾病의 上關係 研究.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6.

25) 이영주. 陰陽五行 體質에 따른 皮毛에 關한 研究.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5.

26) 朴錫紀. 運氣體質과 電子脈診. 大韓韓醫學會脈診學會誌. 1996. 2. p.47.

2. 運氣 25體質의 專門書

前述한 『五運六氣金木水火土相生相克法』²⁷⁾, 『濟生論』²⁸⁾, 『五運六氣經驗處方』²⁹⁾을 비교해 볼 때, 『濟生論』은 目次와 冊의 敍述方向이 중복되지 않고 各 장 짜임새가 있는 構成을 보이고 있다.

『五運六氣金木水火土相生相克法』과 『濟生論』의 處方은 대체로 같으나, 運氣學的 說明이 풍부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濟生論』이 원래의 書籍名이거나 아니면 원본에 가까운 冊이라고 생각된다.

『五運六氣經驗處方』은 前述된 두 冊을 習得한 後에 자신의 臨床經驗方을 첨부하여 整理를 한 것이 主要内容인데, 이 뒷부분의 說明으로 보아서는 著者가 運氣醫學을 공부했던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仙人秘傳五運六氣治病藥法』³⁰⁾도 五運六氣에 대한 說明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며, 著者인 金于齊도 그가 著述한 다른 冊³¹⁾들로 볼 때 實際로 이 사람은 五運六氣를 運用하는 사람이 아닌 處方만을 계산해서 單純하게 使用했던 사람으로 보인다.

『五運六氣經驗方』을 지은 許充도 命理學을 공부했지만, 五運六氣를 運用하기 보다는 處方集을 구하여 應用하고 醫學的 經驗이 쌓인 후에 몇 處方을 補入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許充이 『五運六氣經驗方』에 記錄해 놓은 處方은 當時나 그 以前에 이미 世間에 알려져 있던 處方을 모은 것이고, 『五運六氣金木水火土相生相克法』이나 『濟生論』은 처음부터 끝까지 運氣論으로 說明한 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師事를 받으며 筆寫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五運六氣漢醫學寶鑑』, 『五運六氣處方學』, 『運氣醫學』은 수록된 運氣處方이 同一한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의 研究에 의해 整理된 處方이 世間에 전해지고 있

27) 著者 未詳. 五運六氣金木水火土相生相克法. 年度 未詳. 發行處 未詳.

28) 著者 未詳. 濟生論. 年度未詳. 發行處 未詳.

29) 許充. 五運六氣經驗處方. 釜山, 三和文化印刷社, 1988.

30) 金于齊, 金莊善. 仙人秘傳五運六氣治病藥法. 서울, 明文堂, 1981.

31) 卜筮正宗精解(명문당, 1972), 정본만세력(삼신서적, 1979), 천세력(창원사, 1963), 사주대관(삼신서적, 1971) 당사주와 성명학(명문당, 1973) 등

단 處方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出生日과 入胎日로 질병을 예측하고 처방 구성하는 運氣處方書는 크게 體質 別로 단일 處方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수의 處方을 사용하는 경우로 兩分할 수 있다.

運氣體質 別로 단일 處方을 수록해 놓은 책들의 경우, 그 處方이 患者에게 運用할 수 있는 유일한 處方이 아님을 언급하였는데, 다수의 책들이 明代 李梴의 『醫學入門』의 臟腑補瀉溫涼藥과 함께 處方の 加減法을 說明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을 살펴보면, 『運氣醫學』에서 著者は “運氣醫學은 患者에 대한 不變하는 어떤 것을 提供하는 것이 아니라 一般的인 性向을 提供할 뿐 病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體質이야 변하지 않지만 現在の 狀況은 體質에 의해서만 左右되는 것은 아니다. 現在の 狀況은 病과 環境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 疾病은 恒常 變하기 때문에 現在の 狀況을 잘 判斷하는 것이 의사의 適切한 任務라 할 수 있다. …… 五行의 性質과 서로간의 關係를 알고 이를 運用하는 方法을 알면 臟腑辨證 등 다른 辨證方法과 함께 자유롭게 辨證을 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醫師를 매우 편하게 해주는 長點이 있다.”³²⁾라고 하여 運氣만을 고집하거나 處方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음을 說明하고 있다.

『五運六氣經驗處方』을 비롯해 運氣體質 別로 다수의 處方을 수록한 書籍들은 그 疾患과 處方の 數에 있어서 방대한 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단일 處方만을 수록한 책들과 비교했을 때 基本 處方の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또한 傷寒方을 많이 運用하였다.

그러나 질환과 體質의 상관성, 또는 體質과 處方の 상관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研究가 進行되어야 한다.

3. 運氣 25體質의 處方 比較

『五運六氣學』³³⁾, 『五運六氣漢醫學寶鑑』, 『五運六

氣經驗處方』의 運氣體質 別 處方에 있어서 비록 處方 構成과 辨證의 방식이 차이가 나지만,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運氣 25體質에 가능한 處方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나의 運氣 體質에 나타나는 病이 하나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五運六氣經驗處方』의 處方들은 『五運六氣學』, 『五運六氣漢醫學寶鑑』과 비교해 볼 때 중복되는 처방이 거의 없다.

김태희는 『五運六氣漢醫學寶鑑』에서의 60년간 運氣體質 處方이 주로 四物湯과 六味地黃湯을 응용한 처방이라고 하였는데,³⁴⁾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결과 『五運六氣學』과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의 運氣體質 處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五運六氣經驗處方』, 『五運六氣學』,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의 運氣 25體質 處方에서 사용된 主要處方은 八味湯과 四物湯이다. 또한 비록 명칭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나 八味地黃元 계열의 處方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 處方들은 症狀에 맞게 변용되어 君藥을 變化하거나 加減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八味湯은 『五運六氣學』, 『五運六氣漢醫學寶鑑』에서 水臟의 處方說明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五運六氣經驗處方』에서는 處方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四運氣臟腑를 除外하고 處方名에서 加味나 加減 등의 處方을 모두 하나로 보았을 때, 『五運六氣學』에서는 총 53種의 처방이 언급되었는데 이 중 八味湯이 11회, 四六湯이 5회, 六君子湯이 3회였고, 『五運六氣漢醫學寶鑑』에서는 43종의 處方記錄³⁵⁾이 있는데, 이 중 八味湯, 四物湯, 雙和湯이 6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五運六氣經驗處方』의 경우 補藥에서는 52種의 處方 중 蒼朮湯, 厚朴湯과 山藥湯의 順序로 많았다.³⁶⁾ 時疫의 경우 구체적인 處方內容 없이 處方名만 언급되는 각 장부 ⑥의 항목을 제외하고서 ④항의 경우만을 볼 때 28種의 處方이 있는데, 그 중 紫蘇飲, 蒼朮湯,

32) 박영배, 김태희 編著. 運氣醫學. 서울. 성보사. 2005. pp.133-134.

33) 白南喆. 五運六氣學. 서울. 한림의학사. 1979.

34) 박영배, 김태희 編著. 運氣醫學. 서울. 성보사. 2005. p.54

35) 臟腑體質과 관련되어 앞부분에서 重複되어 각주에 記載한 處方은 除外했다.

36) 回數를 쓰지 않은 것은 처방구성의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白朮湯이 모두 세 번씩 言及되었다. ㉠와 ㉢를 합하면 103種의 處方이 言及되었는데, 藿香正氣散이 9회, 白虎湯과 九味羌活湯이 6회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五運六氣經驗處方』에서 자주 언급된 蒼朮湯, 厚朴湯의 경우는 각 條文별로 處方의 내용이 차이를 보인다.

각각의 體質別 處方에 있어서 『五運六氣學』과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은 두 책의 내용이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대부분 症狀에 대한 비슷한 인식과 處方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處方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代用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판단한다.

『五運六氣學』, 『五運六氣漢醫學寶鑑』, 『五運六氣經驗處方』에 나타난 運氣 25體質別 基本處方의 種類를 比較하고 處方의 特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과 같이 木運臟腑體質 處方을 비교하면, 『五運六氣學』의 處方은 木의 太過로 인해 발생하는 津液의 손상과, 木克土로 인한 脾胃의 질환을 중시하여, 脾胃의 機能을 높이거나 도와주는 處方과, 木의 火熱로 인한 津液의 損傷을 막기 위한 處方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의 處方 역시 이러한 특징을 따르고 있으나 木土臟腑體質의 加減八味湯은 木克土하여 脾胃의 濕이 重濁해져 下焦까지 미치는 症狀에 대해 處方을 한 것이며, 木金臟腑의 芎朮四物湯은 津液의 損傷을 치료함과 더불어 清熱하는 黃芩을 君藥으로 사용하였다. 『五運六氣學』보다 辨證과 處方에 있어서 仔細한 것이 특징이다.

『五運六氣經驗處方』의 處方도 기본 성격은 위의 책들과 같은데, 藥材의 構成上 清熱, 祛風과 理氣까지 고려한 점이 특징이며, 肝木의 風熱에 대한 인식이 더해졌다.

표2와 같이 火運臟腑體質 處方을 비교하면, 『五運六氣學』은 處方이 모두 補陰補血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發散藥인 十神湯의 處方內容도 葛根과 川芎이 들어 있어서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五運六氣漢醫學寶鑑』도 『五運六氣學』의 특징을 따르고 있는데, 火運 發散藥인 解表湯에도 葛根과 川芎이 加味되었고, 火水臟腑의 八物湯은 心火의 太過로 下焦가 虛冷해지는 症狀에 대한 處方이며, 火木臟腑의 大承氣湯의 境遇 火克金하여 大腸의 燥熱로 인해 大便閉하는 症狀에 대한 處方이다.

運氣 25體質	五運六氣學	五運六氣 漢醫學寶鑑	五運六氣經驗處方	
			補藥	時疫
木火	十全大補湯 大調中湯	平胃散 知柏雙和湯	升麻飲	山藥湯
木土	平肝湯 十全大補湯	加減八味湯 雙和湯	茯苓湯	羌活湯, 柴胡桂枝湯, 半夏瀉心湯, 白朮湯
木金	蒼朮湯, 治中湯, 六味湯	芎朮芍歸湯 加味補益湯	青皮湯, 山藥湯	山藥湯, 敗毒散, 半夏瀉心湯, 酸棗仁湯, 柴胡桂枝湯
木水	治中湯, 八物湯	加味四物湯	茯苓湯, 黃芪飲	羌活湯, 人蔘敗毒散, 理中湯
木木	治中湯, 雙和湯	治中湯, 雙和湯加人蔘	補中益氣湯, 益氣湯, 青皮湯(2種類)	柴胡飲, 小柴胡湯, 敗毒散, 半夏瀉心湯

표 1. 木運臟腑體質 處方比較

運氣 25體質	五運六氣學	五運六氣 漢醫學寶鑑	五運六氣經驗處方	
			補藥	時疫
火土	四六湯, 加味四六湯	清肝解鬱湯, 雙和湯, 四物湯	加味四物湯 (3種類)	柴芩湯, 白虎湯, 升葛湯, 竹葉石膏湯, 柴胡湯
火金	雙和湯, 十神湯	加味生脈散, 雙和湯, 四物湯, 生脈散合四物湯	地黃湯, 芍藥湯, 玄蔘飲	升麻葛根湯, 白虎湯
火水	腎氣湯, 加味腎氣湯	八物湯 ³⁷⁾	芍藥湯, 蓮芩湯	升葛湯, 白虎湯, 益元散, 弓蘇散
火木	雙金湯, 四六湯, 雙和湯	加味雙補湯 大承氣湯	地黃湯	連翹飲, 白虎湯, 升麻葛根解肌湯
火火	加味四六湯, 雙金湯, 十神湯	解表湯 生脈雙和湯	黃連湯	柴胡飲, 黃芪石膏湯, 黃連解毒湯, 白虎湯

㉔2. 火運臟腑體質 處方比較

運氣 25體質	五運六氣學	五運六氣 漢醫學寶鑑	五運六氣經驗處方	
			補藥	時疫
土金	理中湯, 加味理中湯	加味八味湯, 平胃散	木香飲, 當歸飲	紫蘇飲(2種類)
土水	加味八味湯 (2種類)	加味八味湯, 朮附湯	蒼朮湯, 厚朴湯	羌活湯, 不換金正氣散, 人蔘養胃湯, 九味羌活湯, 藿正散
土木	五味子湯, 加味五味子湯	無名方 ³⁸⁾ , 復元湯	艾葉湯, 蒼朮湯	荊防湯, 藿正散, 荊敗散, 桂枝湯, 九味羌活湯
土火	加味八味湯	八味湯	當歸湯, 滋元湯, 地黃湯	川芎飲, 敗毒散
土土	加減八味湯, 八味湯, 大承氣湯	加減八味湯	六味丸加肉桂, 蒼朮湯	蒼朮湯, 敗毒散, 桂枝湯

㉔3. 土運臟腑體質 處方比較

37) 天安漢醫師會. 五運六氣漢醫學寶鑑. 서울. 右文堂印刷社. 1967. p.190.

若無滯則白茯苓爲君 白茯苓 四錢, 山藥, 山茱萸 各二錢, 熟
朮, 牡丹, 澤瀉 各一錢半, 乾薑 一錢, 肉桂, 附子 各五分. 陰

人則乾薑 若陽人則去乾薑 入附子, 大黃, 枳實 各七分. 處方
의 內容은 八味湯이다.

38) 天安漢醫師會. 五運六氣漢醫學寶鑑. 서울. 右文堂印刷社. 1967. p.191.

이처럼 『五運六氣學』과 그 辨證과 處方이 대체적으로 같지만 『五運六氣學』보다 광범위하다.

『五運六氣經驗處方』의 處方은 黃連解毒湯만을 제외하고 淸熱生津하는 것이 대체적인 특징이다.

표3과 같이 土運臟腑體質 處方을 비교하면, 『五運六氣學』의 특징은 中焦나 下焦를 溫陽하는 處方으로 脾濕이 重하여 脾胃에 발생한 문제와 重해진 脾濕이 克水하여 下焦가 冷해지는 病을 치료한 점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大承氣湯의 경우 濕重으로 인해 발생하는 脘腹痞滿을 빠르게 다스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의 特徵도 이와 같으나 土金臟腑의 平胃散은 寒證이 없고 脾胃痰飲이 강한 경우 사용하는 處方이며, 土水臟腑의 朮附湯도 동일한 관점에서 蒼朮을 君藥으로 하였다.

『五運六氣經驗處方』은 厚朴, 蒼朮, 山查 등의 藥物을 사용하여 脾胃의 痰飲을 직접 제거하는데 치중한 것이 그 특징이다.

표4와 같이 金運臟腑體質 處方을 비교하면, 『五運六氣學』은 일반적으로 脾胃機能을 고려한 處方으로 構成되었는데, 四六湯의 경우 火로 인해 燥熱해진 金氣가 津液을 損傷함을 憂慮한 處方으로 이 特徵과는 差異가 있다.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의 處方의 特徵은 각 體質마다 다양한 辨證으로 體質 別 處方 構成이 달라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 八味湯은 下焦虛冷, 補中治濕湯은 脾胃濕痰, 八物湯은 氣血俱虛, 加味十神湯과 治中湯은 發散과 脾胃痰飲 등 體質마다 處方에서 유추할 수 있는 病理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病理로 미루어 보면 金土臟腑體質의 歸脾湯은 이해하기 어렵다.

『五運六氣經驗處方』의 특징은 補藥에서는 痰飲을 다스리는 處方이 위주가 되고, 時疫에서는 發散藥 위주로 構成된 것이라 하겠다.

표5와 같이 水運臟腑體質 處方을 比較하면, 『五運六氣學』의 特徵은 水水臟腑를 제외하고 八味湯을 사용한

運氣 25體質	五運六氣學	五運六氣 漢醫學寶鑑	五運六氣經驗處方	
			補藥	時疫
金水	加味四君子湯(2種類), 六君子湯	加味八味湯, 萬靈丸	茱萸湯, 蒼朮湯	白芷飲, 香蘇散, 藿正散, 人蔘敗毒散, 九味羌活湯, 四逆湯
金木	加減補中益氣湯(2種類)	補中治濕湯	厚朴湯	雙活湯, 敗毒散, 藿正散, 九味羌活湯, 五積散, 小青龍湯
金火	補正湯, 四六湯	八物湯	厚朴湯	白芷飲, 敗毒散, 桂枝湯, 助胃承氣湯
金土	六君子湯, 人蔘養胃湯, 加味六君子湯	歸脾湯	木香飲	紫蘇飲, 麻黃湯, 藿正散, 九味羌活湯, 五積散
金金	八物湯	加味十神湯, 治中湯	蒼朮湯, 六味湯, 厚朴湯	芎歸湯, 敗毒散, 藿香散, 羌活湯, 五積散

표4. 金運臟腑體質 處方比較

胃冷有風之人也：澤瀉 二錢, 附子, 木香, 茴香, 川椒, 獨活, 厚朴, 橘皮, 吳茱萸蕩漚, 肉豆久, 檳榔 各一錢, 蘇葉 五分.

運氣 25體質	五運六氣學	五運六氣 漢醫學寶鑑	五運六氣經驗處方	
			補藥	時疫
水木	加減八味湯	雙和湯, 雙金散	山藥湯 三果煎	茯苓湯, 乾薑湯
水火	八味湯	芩朮四物湯, 鎮陰煎	山藥湯 蒼朮湯 薏苡仁湯	白朮湯, 人參敗毒散, 藿香正氣散, 九味羌活湯, 理中湯, 四逆湯
水土	加味八味湯 (2種類)	加味治中湯, 八味湯 紫莞丸	蒼朮湯, 厚朴湯	蒼朮湯, 人參敗毒散 人參養胃湯 四逆湯
水金	加減八味湯 (2種類)	八味湯, 雙和湯加減方	蓼茸湯, 茯苓湯, 蓼朮湯, 羌活湯, 無名方 ³⁹⁾	羌活湯, 人參敗毒散, 藿正散, 九味羌活湯, 四逆湯, 三味三黃湯
水水	附子理中湯 (2種類)	朮附湯, 六味湯, 八物湯, 四物湯	茯苓湯, 寧神立臥丸	白朮湯, 人參敗毒散, 藿正散, 理中湯, 四逆湯, 五苓散

표5. 水運臟腑體質 處方比較

것이며,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은 補血補陰하는 處方들이 많지만 加味治中湯이나 朮附湯, 八味湯, 雙金湯, 鎮陰煎 등의 처방으로 類推해 볼 때 臟腑關係에 있어서 痰飲이나 中下焦의 冷證에 대해 다양한 辨證과 그에 따른 處方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五運六氣經驗處方』은 蒼朮湯, 薏苡仁湯, 厚朴湯, 茯苓湯, 理中湯, 四逆湯, 乾薑湯 등 脾胃를 다스린 處方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IV. 結論

運氣 25體質의 處方에 대해, 『五運六氣學』, 『五運六氣漢醫學寶鑑』, 『五運六氣經驗處方』 등을 위주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運氣 25體質을 구분하는 入胎日에 관련된 내용이 醫書에서 언급된 것은 『東醫寶鑑·內景·身形篇』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入胎日을 推命하는 方法은 宋代까지 사용되었던 命理學의 三柱를 따르고 있다.

2. 『五運六氣學』과 『五運六氣漢醫學寶鑑』에는 入胎日을 기준으로 각 運氣體質을 25種으로 區分하고 基本方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五運六氣金木水火土相生相克法』, 『濟生論』, 『五運六氣經驗處方』은 入胎日을 基準으로 運氣體質을 分類하고 해당 질환과 處方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3. 『濟生論』과 『五運六氣金木水火土相生相克法』, 『五運六氣經驗處方』, 『章溪口錄』은 條文의 數에서 差異가 나지만, 같은 條文이라면 處方은 同一하므로 기본적으로 같은 內容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濟生論』은 體質別 疾患에 대한 處方에서 處方名이 없는 境遇가 大部分이며, 『五運六氣金木水火土相生相克法』은 處方名이 君藥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많

39) 許充. 五運六氣經驗處方. 釜山. 三和文化印刷社. 1988. p.264.

不忘生冷 五靈脂, 附子, 人參, 白茯苓, 桑寄生 各二錢, 當歸, 山查, 麻子仁, 陳皮, 神麩, 黑豆 各一錢
五分, 鏡面朱砂 三分, 大棗肉 作丸.

있고, 『五運六氣經驗處方』도 이러한 방식이 그대로 나타난다.

4. 『五運六氣學』과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은 『五運六氣經驗處方』에 비해 補氣補血하는 處方을 많이 사용했으며, 『五運六氣經驗處方』은 주로 淸熱, 祛風, 化痰, 理氣 등 治療 側面을 強調한 處方을 사용했고,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은 『五運六氣學』보다 세분된 辨證을 하여 다양하게 處方을 이용했다.

5. 運氣 25體質의 處方에 대해, 『五運六氣學』과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은 八味湯, 四物湯을 위주로 다양한 加減과 合方을 하고 있다. 특히 『五運六氣經驗處方』은 補藥에서 蒼朮湯과 厚朴湯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時疫에서 藿香正氣散, 九味羌活湯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運氣 25體質은 환자의 기본적인 體質에 대해 객관적인 분류가 가능하고, 臟腑 盛衰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한다고 본다.

또한 運氣 25體質 중 하나의 體質에도 여러 處方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辨證을 무시하여 오로지 기계적인 계산에 의해 환자와 처방을 단순히 대응해서는 안 되고, 동일한 運氣 體質에도 그 病理를 細分하여 사용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參考文獻

<논문>

1. 金基郁. 運氣體質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學史學會誌. 10. 1996. p.595, 598.
2. 朴錫紀. 運氣體質과 電子脈診. 大韓韓醫學會脈診學會誌. 1996. p.19, 47.
3. 이영주. 陰陽五行 體質에 따른 皮毛에 관한 研究.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5.
4. 申龍燮, 李容範. 黃帝內經의 體質理論에 대한 研究. 大韓原典醫學史學會誌. 14(2). 2001. p.19.
5. 정연미. 徐子平 珞珠子三命消息賦註의 命理學史的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철학대학원. 2003.

6. 정인순. 四柱와 疾病의 上關關係 研究.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6.
7. 鄭昌根. 장기별 증증질환 증상의 발현과 명리학적 분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2.

<단행본>

1. 박영배, 김태희 編著. 運氣醫學. 서울. 成輔社. 2005. p.54. pp.133-134.
2.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317.
3.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類編黃帝內經. 大田. 周民出版社. 2005. p.45, 51.
4. 天安漢醫師會. 五運六氣漢醫學寶鑑. 서울. 右文堂印刷社. 1967. p190, 191.
5. 崔晟植 編. 五運六氣處方學. 미국. 동양서적. 1997.
6. 許浚.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116.
7. 許充. 五運六氣經驗處方. 釜山. 三和文化印刷社. 1988. p.264.
8.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3. p.241.

<기타>

1. 上陽子.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CD).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8.